

# 한화오션, 美 해군 MRO 성공... 韓 해양방산 이정표 세웠다

〈유지보수·정비〉

김동관 부회장, 현장경영 빛나  
윌리 쉬라호 정비 마치고 출항  
靑·중동·유럽 등 MRO 사업 확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

/한화오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화오션이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및 정비(MRO) 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13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가 정비를 마치고 출항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한미 해양방산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MRO 작업은 거제사업장에서

6개월간 진행됐으며 선체 및 기관 유지보수, 주요 장비 점검 및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됐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초기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한 함정의 새로운 정비 소요를 확인해 기술력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매출도 증가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국 함정 정

비 협약(MSRA)을 체결한 후 첫 프로젝트로 윌리 쉬라호 MRO를 수주했다. 현재 지난해 11월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호도 수주해 정비하고 있다. 유콘호는 거제 지역 내 중소 조선업체와 협력해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윌리 쉬라호의 성공적 정비 사업을 계기로 한국 조선소를 글로벌 해군 MRO 시장의 요충지로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아시아, 중동, 유럽 등으로 MRO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 해군 MRO 시장은 약 80억달러(11조6304억원) 규모다.

한화오션은 올해 5~6척의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MRO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등에 참석해 미국 새 정부의 주요 국방 안보 책임자들과 만나 한화오션의 사업 역량을 소개하고 미국 내 사업 기회를 모색한 바 있다.

패트릭 무어 미 해군 해상 수송 사령부 한국과견 대장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 태스크포스팀(TFT) 상무는 "이번 MRO 사업 성공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MINI코리아, 韓 시장 진출 20주년

#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출격... "전동화 시대 선도"

'에이스맨·쿠퍼·컨트리맨'

성능·기술·미래 혁신 포부 밝혀  
"전기차, MINI 감성·경쾌함 계승"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다재다능한 MINI(미니)는 국내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에서 연 1만대, 누적 12만대의 판매량을 넘긴 브랜드다."

정수원 MINI코리아 총괄 본부장은 13일 인천 영종도 'MINI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3종 출시 행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 20주년을 맞은 MINI 브랜드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MINI코리아는 소형차 불모지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소형차'라는 세그먼트를 최초로 도입한 브랜드다.

정 본부장은 "MINI코리아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성능의 혁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의 행보에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차 3종이 선두에 선



MINI코리아는 13일 인천 영종도 'MINI 드라이빙 센터'에서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MINI 에이스맨, MINI 쿠퍼, MINI 컨트리맨(왼쪽부터)' 등 신형 전기차 3종을 공개했다. /MINI코리아

다"고 말했다.

이날 MINI코리아는 한국 진출 20주년을 기념, '미니이십'이라는 한글과 태극문양을 활용해 제작한 엠블럼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BMW그룹이 해외 법인 중 국가에 맞춰 엠블럼을 제작한 것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MINI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의 핵심 모델인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 시리즈인 'MINI 에이스맨', 도심형 전기 모델 'MINI 쿠퍼', MINI의 첫 번째 전기 패밀리카 'MINI 컨트리맨' 등 총 3종을 선보였다.

특히 MINI 쿠퍼와 MINI 컨트리맨 사이에 위치하는 콤팩트 SUV인 MINI 에이스맨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모델로 BMW그룹의 5.5세

대 고전압 시스템을 적용했다.

파워트레인 E와 SE 2가지 종류로 출시되며 최고출력은 각각 184마력, 218마력이다. 54.2킬로와트시(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유럽 WLTP 기준 405km, 국내 기준 312km다. 급속충전으로 배터리를 10~80%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약 31분 소요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MINI 쿠퍼 전기차는 고유의 차체 비율과 클래식한 원형 헤드램프, 팔각형 그릴, 유니언 잭을 형상화한 리어램프 등을 유지해 MINI 고유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했다. 최고출력은 218마력이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유럽 WLTP 기준 400km, 국내 기준 300km다.

MINI 컨트리맨은 MINI가 출시하는 첫 번째 전기 패밀리카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넉넉한 공간과 뛰어난 활용성을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MINI 컨트리맨은 2가지 파워트레인으

로 판매되며 'SE ALL4'는 2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된 4륜구동 모델로 최고출력 313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인증받은 주행가능거리는 4륜구동 모델의 경우 유럽 WLTP 기준 432km, 국내 기준 326km다.

특히 MINI코리아는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패밀리를 개발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해 개발한 직경 240mm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선명한 화질과 신속한 반응성으로 스마트폰을 닮듯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은 MINI 에이스맨 E와 SE가 각각 4970만원, 5800만원이며, MINI 쿠퍼는 클래식 5250만원, 페이버드 5610만원, MINI 컨트리맨은 E클래식 5670만원, SE ALL4 페이버드 6310만원, SE ALL4 JCW 6610만원이다.

MINI코리아 관계자는 "MINI 고유의 감성과 경쾌함을 순수전기차에 고스란히 담아낸 이번 신형 모델은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매력과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며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MINI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판매

건조용량 18kg... 쾌속코스 79분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에 성능도 크게 높인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건조용량을 기존 제품보다 3kg나 늘려 국내 최대 18kg의 건조 용량을 달성하고, 열교환기 구조와 예열 기능 개선해 건조시간을 20분이나 단축했다. 세탁 용량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8kg으로 국내 최대 용량이다.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열교환기를 통해 건조 효율을 극대화했다. 열교환기의 핀(fin)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해 전열 면적을 약 8% 확대했다. 건조 히터를 통해 예열

기능의 효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건조 시간을 기존 모델 대비 20분 가량 크게 줄였다. '쾌속 코스' 기준으로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수행할 수 있다.

세탁 시 에너지소비효율도 좋아졌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드림세탁기 1등급 최저 기준과 비교해 세탁 시 세탁물 1kg 당 소비전력량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보다 45% 낮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7형 터치스크린 'AI 홈(Home)'이 탑재돼 스크린으로 다양한 코스와 기능을 한눈에 보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AI 홈' 스크린에서 집안 도면을 3차원으로 보여주고 연결된 가전의 위치와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D 맵뷰(Map View)'를 활용해 스마트싱스



삼성전자 모델이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 연결된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 고도화된 '빅스비(Bixby)'를 통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지시나 복잡한 명령어도 이해하고 직전 대화를 기억해 연속으로 이어서 대화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한화에어로, 친환경 무탄소 선박 시장 진출

선급협회 DNV 개념승인 인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0kW(킬로와트)급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 무탄소 선박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해 말 개발한 액침냉각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함께 무탄소 동력원을 잇달아 확보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일 세계 권위의 선급 협회인 DNV로부터 AIP(개념승인)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IP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제작할 때 기본설계 단계부터 기술 적용의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해 주는 절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KR(한국선급) AIP 인증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DNV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DNV 인증을 받은 수소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다. 저온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아 선박 등 운송에 적합하다. 또한 병렬제어 기능으로 MW(메가와트) 단위의 용량 확장이 가능해 중대형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AIP의 다음 단계인 선박용 연료전지의 형식 인증도 확보해 무탄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선박 개발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